

그 곳

© 2000 년 10 월 아세르 인트레이터

그 곳. 그곳은 겨우 수백 제곱 미터 되는 곳입니다. 그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 22) 아들을 취해 제물로 바치라고 한 곳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선택한 것도 그 곳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아의 사역의 중심지였으며, 장래 왕국의 중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겨우 수백 제곱 미터 되는 곳이지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 곳을 성전산이라 부릅니다. 무슬림들은 알 아끄사 모스크라고 부르고요. 양쪽 모두 그 곳을 성스럽다 합니다. 때로 저는 어떤 장소가 그 자체로 거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지난 몇 년 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 협정에 근접했습니다. 양측 모두 많은 양보를 감수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온갖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 예루살렘 통치에 관한 큰 타협까지 감수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곳은 완전히 아랍 거주지입니다.)

타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평화 협정을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곳을 빼면 말입니다. 그 수백 제곱 미터의 땅을 빼면. 유대 민족은 통곡의 벽 위에 있는 그 언덕에 대한 타협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슬림 세계도 알 아끄사 모스크와 생사를 함께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그 땅이 유대인들에겐 성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주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파가템 (pagatem, 모욕, 멸시, 상처 줌)을 했다. 알 아끄사를 파가템 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를 파가템 한 것이다.”

일주일 여전에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를 벗었습니다. 정계 복귀 의사를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그가 리쿠드 당 리더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은 열려 있고, 총리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네타냐후의 혐의가 풀리고 이스라엘 신문들이 그에 대한 기사를 다루자마자, 리쿠드 당의 현 지도자인 아리엘 샤론은 성전 산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리쿠드 지도층 및 국회 의원들을 불러 함께 가자 했습니다. (결국 적은 수만이 나타났지만요.) 물론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정치적 공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샤론의 시도를 리쿠드 당내 지도층의 역동성을, 특별히 아랍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돌아올지 모를 네타냐후의 이미지와 견주어,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공포의 내용은, 온갖 평화 회담이 오가는 와중에도 성전산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것임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곳은 우리의 소유며, 우리의 소유일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모스크가 그 곳에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무리 성을 내더라도 언제든 그 곳에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아랍 지도자들은 큰 파장을 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도 이 정도까지 큰 파장을 낼 거라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의 폭력적 반응은 우익의 부차적, 혹은 무의식적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적 의도는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자극하여 다가올 평화를 망칠 일들을 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성전산이 유대 민족에게 거룩한 것이라는 샤론의 성명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랍비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성전산 방문이 금지돼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샤론은 세속적 유대인입니다. 종교인들은 결코 그 곳에 가지 않겠지요. 랍비들의 생각은 무심결에라도 지성소를 밟아 그 곳을 더럽히는 중죄를 범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소요는 정말 상상 외로 컸습니다. 더 폭력적이었고 더 광범위했으니까요.

유대인이며 예슈아를 믿는 저희들에게, 성전산이 유대인에게 신성하지 않으며 그 곳에 갈 권리가 없다는 전 무슬림 세계의 주장은 말도 안 되며,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마치 성전산이 온 무슬림들의 소유이며, 유대인들의 것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놓고 전쟁을 벌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이 결렬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이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곳에는 타협할 수 없으며, 심지어 죽음까지 감행하게 하는 종교적 광신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에게 그토록 화가 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예슈아 시대의 종교적 유대인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그 분의 이해할 수 없는 선포이자 예언에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걸프 전 이래로 가장 심각합니다. 전쟁이 바로 몇 걸음 앞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감회가 남다른 것은 4 주 있으면 저희 큰 아들이 육군 전투 부대에 입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소요의 가장 슬프고 심각한 면은 이스라엘 아랍인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10 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천천하지만 꾸준히 자신들을 이스라엘 아랍인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이스라엘 국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스라엘 사회 내에 동화될 수 없어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편견은 극복되기 힘듭니다. 이것이 슬픈 것은 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만연하는 수십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폭력적 반응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열기는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성전산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응이 단지 종교적인 것이라면 무척 과심해 보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적을 아랍인들이 통제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입장이 금지되는 걸 생각해보면 더욱 화가 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무슬림 사적을 통제하게 되면 그들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별 짓을 다 하니까요).

한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엄청난 반항은 그저 눈먼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좌절을 드러냅니다. 제 생각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의 생존 문제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적, 종교적, 민족적 세력의 충돌의 희생자로 보입니다. 매일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대표자가 없이 33 년을 지내 왔습니다. 많은 경우 심각한 경제 상황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요. 너무나 좌절감이 커서 이제 폭발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성전산 사건은 그들의 낙심을 터뜨릴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터졌고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 이러한 폭력 소요 가운데 무의식적 행복을 느낍니다. 양측 다 자신들의 애국심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표면적으로 '거세'와 같은 평화 협정이 진행되는 상황 중에도, 자신들에게 여전히 남성적 강함이 있음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옛 정의나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양측은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편이고 재들은 나쁜 편이야." 양측 다 종교적 엘리트가 되길 원합니다. 둘 다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둘 다 정의를 위해 억압 받는, 순결하고 고통 받는 성자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랍 측은 이스라엘이라는 공공의 적을 증오하는 데서 일치감을 갖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수장들은 서로 포옹과 입맞춤을 나누며 아랍 연합 정상 회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랍이라는 공공의 적 가운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샤흐 당의 리더 엘리 이샤이조차 이 난국에 바라크를 지지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리쿠드 당과 노동당도 소요가 지속되면 연정이 가능하다는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로를 증오할 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모릅니다. 전쟁을 일으킬 줄은 알지만 평화를 이룰 줄은 모릅니다. 양측 모두 자기를 합리화 하며, 의분에 불 탄다는 착각 속에 귀가합니다.

이 민감한 때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1. 긴장이 고조되어 더 큰 혈전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2. 팽팽한 난국으로 접어들어 얼마간 평화 협정은 중단되고 양측이 차후 격전을 위해 재무장하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3. 중동 협상의 특이한 양상을 보면, 금번의 폭력적이고 널리 보도된 소요로 인해 내키진 않지만 평화 협정에 조인하게 되는 바로 직전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공보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이 군사 보복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면 발포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물론 수십 만의 폭도들이 움직이면 (비록 대부분이 무장은 안 했지만)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군인들이 복잡한 상황 속에 자제력을 잃고 불필요한 폭력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집계로는 50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고 2,000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스라엘 측의 피해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이스라엘 군사 공격의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폭동 속에 사상자의 수를 이 정도로 줄인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대량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난 폭도들이 공격해 올 때 전초대의 군인들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난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 시라도 빨리 모든 게 멈춰지길 바랐음을 꼭 밝혀야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층에서 이 소요가 지속되길 원했음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로 얻는 것이 전무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라파트 및 팔레스타인 지도층은 이번에 무언가 얻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저 통계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은 끔찍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상황은 복잡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순한 해결책과 표면적 슬로건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이슬람의 세력을 기도로 묶읍시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길 기도합시다. 폭력과 피 흘림의 세력을 묶읍시다. 팔레스타인의 고경 가운데 의로운 해결책이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